

‘바람의 아들’ 타이틀 탈환 시동

양용은, PGA 혼다 클래식 1R 선두와 1타차 공동 2위

양용은(39·사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혼다 클래식 첫날 경기에서 공동 2위에 오르며 타이틀 탈환을 향한 힘찬 시동을 걸었다.

양용은은 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가든스 PGA 내셔널골프장 웹피언스코스(파70·7158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뿐이 2언더파 68타를 쳤다.

양용은은 스튜어트 애플비(호주), 찰 슈위젤(남아공) 등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선두 스펜서 레빈(미국)과는 1타차다.

지난주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액센츄어 매치플레이 웹피언십에서 8강까지 진출하며 기세를 올린 양용은은 PGA 투어 통산 3승 도전에

탄력을 받았다.

강풍이 불어 다른 선수들이 난조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바람의 아들’답게 양용은은 침착한 경기를 펼쳤다.

실격 선수를 제외한 142명 중 언더파 스코어를 기록한 선수가 8명에 불과한 정도였다. 그러나 2009년 이 대회 웹피언인 양용은은 첫 홀(파4)부터 버디를 잡으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9번(파4)홀에서 보기를 범해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전반을 마쳤지만, 10번홀(파4)에서 182야드짜리 어프로치샷을 허 2m 이내에 붙이면서 곧장 버디로 만회했다.

양용은은 ‘베어 트랩(bear trap)’으로 불리는 난코스인 15~17번홀에서도 타수를 끊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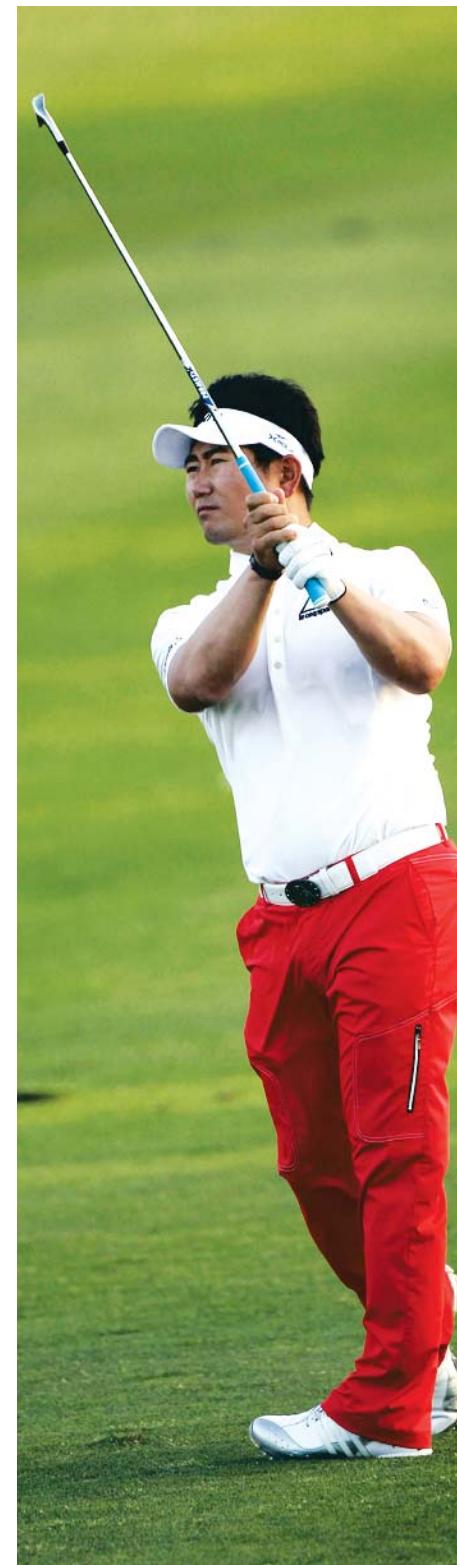
일몰로 10여명의 선수가 1라운드를 마치지 못한 가운데 ‘루키’ 김비오(21·넥슨)는 공동 20위(1오버파 71타), 앤서니 김(26·나이키골프)은 공동 34위(2오버파 72타)에 자리했다.

위창수(39·테일러메이드)는 세계랭킹 3·4위인 루크 더널드(잉글랜드), 그레임 맥도웰(북아일랜드) 등과 공동 45위(3오버파 73타)에 올랐다.

강성훈(24·신한금융그룹)은 더블 보기 4개, 보기 6개를 쏟아내며 최하위인 142위에 머물렀다.

이번 대회 출전 선수 중 세계랭킹이 가장 높은 리 웨스트우드(2위·잉글랜드)는 이븐파인 70타를 쳐 공동 9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올 한국남자골프대회 총상금 133억

하이원 오픈 등 상금 10억 3개 대회로 늘어

올 시즌 한국남자프로골프 투어에서 상금 10억원이 걸린 대회가 작년의 1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한국프로골프투어(KGT)는 4일 올 시즌 개막전인 티웨이항공오픈(3월31일~4월3일·제주 오라골프장)을 시작으로 올해 예정된 19개 대회 일정과 전체 상금(133억원) 규모를 공개했다.

상금 10억원 대회는 지난해까지 코오롱 한

국오픈뿐이었으나 GS칼텍스 매경오픈과 신설대회인 하이원오픈이 같은 상금을 내걸어 올해는 3개로 늘어났다.

한국오픈은 10월 초 천안 우정힐스 골프장, 매경오픈은 5월 5~8일 남서울 골프장, 하이원오픈은 7월 7~10일 하이원골프장에서 개최된다.

유럽프로골프투어와 공동 개최하는 밸렌타인 웹피언십(총상금 220만5000유로)은 경

기도 이천 블랙스톤 골프장으로 장소를 옮겨 4월30일부터 나흘간 열린다.

9억원의 상금이 걸린 SK텔레콤오픈은 5월 19~22일 제주 펀크스골프장에서 열리고, 신한동해오픈은 9월 마지막 주에 개최될 예정이다. 작년 9월 열렸던 한일프로골프 국가대항전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등 해외 대회와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7월 초로 옮겨졌다.

이밖에 매치플레이 대회인 먼싱웨어웹피언십(총상금 4억원)은 시즌 초반 64강전을 치른 뒤 9월 22~25일 캐슬파인 골프장에서 최종 승자를 가린다.

시즌 마지막 대회는 11월 초의 하나투어웹피언십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KIA 스프링캠프 선수단 귀국

12일부터 시범경기

‘V11’에 도전하는 호랑이들이 귀환했다.

괌과 일본에서 담금질을 해온 KIA 타이거즈의 스프링캠프 선수단이 4일 오후 인천 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1월3일 괌 제활조 훈련을 시작으로 스프링캠프에 돌입했던 KIA는 괌과 일본 미야자키 등지에서 2011시즌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체력과 기술훈련을 하며 몸을 만들었던 선수단은 지난 2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를 비롯해 모두 15차례 연습경기를 갖고 실전 훈련을 병행해 왔다. 귀국 후 광주로 이동한 선수단

은 5일 오후 1시 무등경기장 야구장에 집결해 시즌 준비에 고삐를 당길 예정이다.

7일부터는 베스트 라인업 구성을 위한 연습경기 등도 치러진다.

KIA는 7·8일 대구를 찾아 삼성 라이온즈와 연습경기를 갖은 뒤 9일 무등경기장에서 ‘디펜딩 월피언’ SK와 대결한다. 11일에는 제주도에서 네센과의 연습경기가 예정되어 있다.

12일부터는 시범경기 일정이 시작돼 네센과 12·13일 제주도에서 시범경기를 치른다.

한편 2군 선수단도 7일 무등경기장에서 한화 이글스와 대결을 벌이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쎈돌’ 이세돌 13개월 연속 랭킹 1위

이창호 9위로 추락

‘쎈돌’ 이세돌이 13개월째 1위 자리를 지켰고 ‘돌부처’ 이창호는 9위까지 떨어졌다.

이세돌 9단은 4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프로기사 3월 랭킹에서 총점 9833점으로 1위를 고수했다. 작년 3월 이후 13개월째 1위다.

반면 최근 22년 만에 무관으로 전락한 이창호 9단은 처음으로 9위 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바씨카드배 32강전 단한판만을 소화한 이세돌은 중국의 순리 4단에 승리하며 랭킹 포인트를 5점 끌어올렸다. 2위 최철한과의 접수차는 131점으로 지난 달보다 2점 좁혀졌지만 13개월 연속 랭킹 1위이자 통산 44회 수 위 자리를. 44차례 1위는 22차례의 이창호보다 두 배 많은 최고기록이다.

이와 달리 3개월 연속 7위에 머무르며 체면을 구겼던 이창호는 두 계단 낮은 9위까지 추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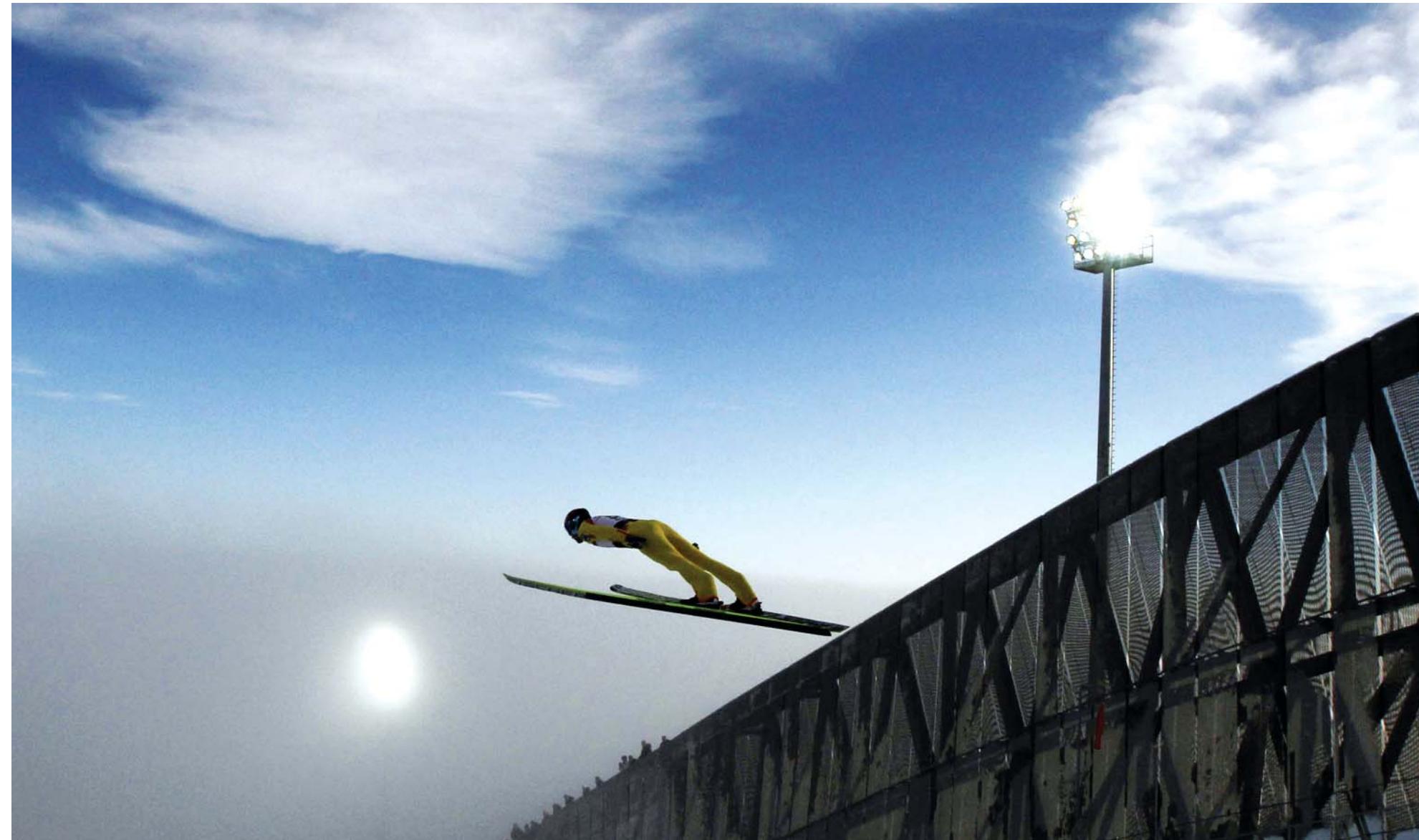
9위는 프로기사 랭킹 발표를 시작한 2005년 8월 이후 이창호의 최하위 기록이다.

최근 최고의 커리어를 보이는 최철한은 2월 한 달간 3승2패를 거두며 2위 자리를 지켰다. 두 달 연속 2위다.

2전 전승의 박정환 9단은 지난 달에 이어 두 달 연속 3위에 올랐고 허영호 8단도 4위 자리를 지켰다.

여자 기사는 여전히 루이아이 웨이 9단(68위)-박지은 9단(72위)-조혜연 9단(80위)의 삼각편대가 상위를 차지했다.

프로기사 랭킹은 최근 1년간의 성적을 합산하여 한국기원이 매달 100위까지 발표한다. /연합뉴스



날오는 새 부럽지 않네

스키 점프의 안네 아호넨(핀란드)가 4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스키 세계 웹피언십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4 브라질 월드컵 축구

아시아 출전권 4.5장 유지

아시아가 2014 브라질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도 4.5장의 본선 출전권을 받았다.

국제 축구연맹(FIFA)은 3일(한국 시간) 집행위원회를 열고 2014 브라질 월드컵의 대륙별 본선 진출권을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때와 똑같이 유지했다고 AP통신 등 외신

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대륙별 주어진 출전권은 2010년 남아공 대회 때와 똑같이 아시아 및 남미 각 4.5장, 유럽 13장, 아프리카 5장, 북중미·카리브해 3.5장, 오세아니아 0.5장이 됐다. 나머지 한 장은 지난 월드컵과 마찬가지로 개최국인 브라질에게 주어졌다.

다면 대륙별 예선을 거친 다음 아시아 5위-오세아니아 1위, 남미 5위-북중미 4위가 플레이오프전을 벌여 최종 출전권의 주인을 가리던 방식은 무작위 추첨 대진으로 바뀌었다.

이번 FIFA 집행위원회를 앞두고 각 대륙은 저마다 출전권 늘리기에 나섰다. 오세아니아는 본선 출전권 1장을 달라며 FIFA를 압박했고 아시아권은 ‘최소 4.5장 유지’를 요구하며 맞섰다.

결국 1장의 온전한 출전 티켓을 원하던 오세아니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시아는 2006 독일 월드컵 이후 세 번 연속으로 4.5장의 출전권을 받았다.

정몽준(60)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 겸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국제축구연맹(FIFA) 명예 부회장에 추대됐다.

4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FIFA는 3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7년 간 세계축구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정 부회장을 FIFA 명예부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1월 치러진 차기 FIFA 부회장 선거에서 떨어진 정 부회장은 오

는 6월까지 임기 남아있어 FIFA 관련 회의에 참석 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는 상태다.

정 부회장은 FIFA 정관

에 따라 6월1일 FIFA 총회에서 명예 부회장으로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정몽준(60)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 겸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국제축구연맹(FIFA) 명예 부회장에 추대됐다.

4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FIFA는 3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7년 간 세계축구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정 부회장을 FIFA 명예부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1월 치러진 차기 FIFA 부회장 선거에서 떨어진 정 부회장은 오

생활 게시판

화족

장 3호실, 062-941-4444.

▲조규례씨 별세 임기준·효님 모친상 이성봉씨 빙모상 장영희씨 시모상=발인 6일(일) 조선대 학교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범덕례씨 별세 이상영·진영 모친상=발인 6일(일)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송순씨 별세 김순모(삼원 전력)·원삼(삼원전력)·용수(삼원기업)·광수(삼원전력)·현숙(삼원전력)·정숙(광주여자대학교)씨 시모상=발인 5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박홍기·이현옥씨 장남 재영(군의관)군 박재성·이정화씨 장녀 서연양=6일(일) 낮 12시 호텔무등파크 4층(컨벤션홀)

부음

장 3호실, 062-515-4444.

▲강삼운씨 별세 최재호(광주 일보 경영지원국 총무부)씨 모친상=발인 6일(일) 효사랑장례식

謹 삼가 故人의 慎福을 빙니다弔

故 문운수 님(남/62세)

子/女婿 : 정진현/김지연, 주철/박현진

女/婿 : 정진화/김재우

• 호실102호 • 발인: 3월 5일 • 장지: 경락공원

故 최진숙 님(여/65세)

子/女婿 : 김재필/김희영, 현호/박정숙

女/婿 : 김민진/김주호

• 호실101호 • 발인: 3월 6일 • 장지: 경락공원

마 음 까지 편 한한

문의 (062)227-4000

謹 故人の 慎福을 빙니다弔

故 신민준 님(남/82세)

子/女婿 : 문애자, 한태승/박영숙